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文대통령 신남방 정책 발맞춰 인도시장 진출 돕는 코트라

기사입력 2018.07.11 06:00 최종수정 2018.07.11 06:37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코트라(KOTRA)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남방 정책 핵심 국가인 인도 순방에 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OTRA는 이번 행사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28개사와 인도 및 서남아 지역 기업 110여개사가 270여건의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했다.

2010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와 2015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격상 등에 힘입어 지난해 교역 규모 2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한국과 인도 간 경제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먼저 산업화 및 경제 성장에 따라 현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인도 법인 및 현지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한 오토젠(차체 제작) 조홍신 대표는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M&M)와 인도 전기차시장 진출, 차체 경량화 신기술 공동 개발 등 미래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태양광 인버터, 방수방진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을 생산하는 비엠이 정국진 대표는 "전력이 부족하고 공급이 불안정한 인도 현지 여건을 감안할 때 자사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 바이어와 29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기쁘다"고 말했다.

친환경 저수위용 수상 태양광 개발 기술을 보유한 세기종합환경 양기해 대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도 기업과의 전력 구매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인도 수상태양광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화장품, 미용·성형 관련 제품, 일반 소비재 등에 대한 인도 바이어 관심은 뜨거웠다. 드러그스토어 웰니스 포에버 메디케어, 화장품 대표 유통업체인 글로버스 스토어 등 소비재 분야 굴지의 인도 기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수소수기, 알칼리이온수기 제조업체인 KYK김영귀환원수 김영귀 대표는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인도는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도 파트너와 협력해 현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샤워필터를 만드는 로스팅컴퍼니로움도 인도 바이어와 현지 시장 조사 및 마케팅을 위한 샘플 계약을 맺었다.

ICT 분야 혁신기술 기업 26개사와 120여개 인도 기업이 참여한 'K-Global 인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투글로벌(B2G)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뉴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등 인도 전역에서 모인 현지 ICT 기업들과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핀테크 솔루션 업체인 지니정보통신과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한 홍채인식 보안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이리언스는 인도 기업과 제품 공급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KOTRA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대(對)인도 진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지 수요가 많고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전기전자 산업 관련 인도 전기전자·반도체협회(IESA)와 MOU를 체결해 인도 ICT 시장 동향 조사, 산업 분야별 수요 공급 맵핑 보고서 작성, 모바일 분야 부품소재 수출상담회(GP 모바일) 개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 제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부 구자라트 주(州)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인구 5위의 공업 도시 아메다바드에 무역관을 개설하고 구자라트 주 투자 행사인 '바이브런트 구자라트'에 내년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인도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이자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와는 양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이번 정상 방문을 계기로 전기전자, 에너지·환경 등 현지 수요를 바탕으로 양국이 윈윈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해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프린트하기